

커피찌꺼기로 만든 청바지... 화학물 줄인 등산복...

지구의 날 맞아 '必환경' 앞장서는 패션 브랜드

〈4월 22일〉

리사이클 소재·친환경 제조 공법 등 지속가능한 패션 추구하는 활동 전개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고취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 보호를 지향하는 패션 브랜드들의 행보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깨끗한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로 친환경이 사용되었다면, 요즘에는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소비 형태인 '필(必)환경'이 메가 트렌드로 떠오르며 산업 전반에 걸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따라 패션업계도 일상생활에서 버려질 수 있는 소재를 리사이클하는 것은 물론 친환경 제조 공법 개발하고 소비자들에게 윤리적으로 지속가능한 패션(Conscious fashion)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의미있는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커피 찌꺼기, 플라스틱 물병 등 자원 재활용 ↑

패션업계에서는 쓰레기로 버려질 수 있는 소재를 활용하여 새로운 의류로



FRJ의 아이스카페 데님.

재탄생되기도 한다. 글로벌 노마드 데님 캐주얼 브랜드 FRJ는 원두 찌꺼기를 재활용한 기능성 청바지 '아이스카페 데님'을 선보이고 있다. 커피 원두를 내리고 난 뒤 남은 찌꺼기에서 나노 입자를 추출해 원사에 적용한 제품으로 수분을 빠르게 흡수하고 건조하는 흡수속건 기능이 장점이다. 여기에 원두가 가진 소취 기능으로 땀 냄새 등 악취를



앤두의 동물보호 메시지가 적힌 친환경 티셔츠.

조절해준다. FRJ가 2016년 업계 최초로 첫선을 보인 후부터 매년 다양한 디자인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으며, 올해는 크롭티오피드 핏을 포함한 남성 9종, 여성 9종으로 핏을 다양화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또한, FRJ는 올해 아이스카페 데님에 이어 오가닉 코튼 소재로 만든 친환경 청바지를 또 한번 선보일 예정이다.

◆물 아끼고 화학제품 줄인 제조 공법으로 환경 보호

글로벌 SPA브랜드 유니클로의 모기업 패스트리테일링은 물 사용량을 90% 이상 줄일 수 있는 워싱 공법을 개발했다. 나노 버블 세정과 물을 사용하지 않는 오존 가스 세정을 조합한 기술로 물을 적게 쓰기도 품질과 디자인을 유지할 수 있다. 이 회사는 오는 2020년까지 유니클로, GU, 피어리 등 그룹 산하 전 브랜드에서 판매되는 청바지에 해당 기술을 도입할 예정이며, 2020년 기준 3조 7000만 리터의 물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능성 아웃도어 제품에 사용되는 고어텍스 소재로 유명한 고어사(W.L. Gore & Associates)도 오는 2020년 말까지 재킷, 신발 등 소비자 의류 원단 전 제품의 85%에 해당하는 제품 제조 전 과정에 환경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과불화화합물(PFCEC)을 제거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실제로 올해 2월 독일 뮌헨에서 열린 세계 최대 스포츠용품 박람회에서 공개한 신제품 고어텍스 3 레이어 라미네이트는 PFC

EC가 제거된 내구성 발수 처리 걸감과 원액 염색 및 리사이클 소재의 장점이 결합된 새로운 안감 섬유로 이루어졌다. 친환경은 물론 캠핑, 하이킹, 여행, 골프, 스키 등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에 알맞은 내구성과 보호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일상 속 다양한 상황에서 착용할 수 있다.

◆환경 및 동물 보호 메시지를 담아 윤리 의식있는 소비 유도

한세엠케이의 캐주얼 브랜드 앤두(ANDEW)는 세계자연기금(WWF)과 컬래버레이션하여 환경 보호 내용을 담은 '친환경' 티셔츠를 공개했다.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새롭게 개발한 오가닉 소재는 화학 처리를 하지 않아 분해가 빠르다. 여기에 특수 가공을 통해 오가닉 특유의 거친 표면이나 빈티지한 느낌은 견어내고 부드러운 촉감과 쾌적함을 살렸다. 티셔츠에는 멸종 위기에 놓은 눈표범과 북극곰, 다양한 생명체들이 서식하는 자연을 보전하는 메시지를 담당 총 5가지 디자인으로 출시됐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롯데면세점, 부산 청년기업 성장 지원

지역 일자리창출 등 경제 활성화

롯데면세점은 부산지역 관광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공헌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19일 '롯데면세점 청년기업 & 지역 상생 프로젝트 in 부산' 사업 최종 지원 대상을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롯데 액셀러레이터와 함께 진행하는 '롯데면세점 청년기업 & 지역 상생 프로젝트 in 부산'은 부산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청년기업 지원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영리 목적의 지분 투자나 용자 형태의 기존 창업 지원과 달리 100% 기부 형태의 지원되는 새로운 사회공헌 모델이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여행자들의 짐 보관 및 운송서비스, 요트 등 선박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승선신고서를 모바일로 작성하는 어플리케이션, 부산 관광지와 AR을 접목시켜 관광 상품 개발, 부산지역 청년과 소상공인이 직접 기획한 여행프로그램, 소상공



롯데면세점.

공인과 제품을 관광객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부산 기념 IOT 자판기, 등 부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모델이 제시됐다.

지원 기관과 최종선정팀은 본격적인 지원에 앞서 4월 말까지 구체적인 사업 실행 계획을 논의하며, 다음달 협약식을 기점으로 공식적인 지원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선정된 10개 팀에게는 사업비 지원은 물론 관련 컨설팅과 사업 개발 지원을 위한 1:1 멘토링 매칭 및 자문서비스 등이 지원되며, 초기 벤처가 어려움을 겪는 경영, 회계, 세무 기초 교육 등 실질적 운영을 도울 수 있는 교육 등이 진행된다. /신원선 기자

“고기 마니아라면 ‘미트클럽 The M’으로”

홈플러스

앱 이용객 대상 단독 혜택 제공
매월 다양한 할인·이벤트 진행

지난달 '고기 대방출' 기획을 통해 고객에게 큰 호응을 일으킨 바 있는 홈플러스가 이번에는 '고기 마니아'들을 위한 특별한 멤버십을 탄생시켰다.

홈플러스는 자사의 멤버십 '마이홈플러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각종 축산상품 구매 시 다양한 단독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 '미트클럽(Meat Club) The M'을 론칭했다고 21일 밝혔다. 축산카테고리 상품을 애용하는 고객들의 로열티를 높이기 위해 탄생한 '미트클럽 The M'은 마이홈플러스 앱에서 '미트클럽 The M'을 설정하면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가입돼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홈플러스는 '미트클럽 The M' 클럽 설정 고객을 대상으로 매월 다양한 축



/홈플러스

산식품에 대한 단독 할인혜택 뿐 아니라 유익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오프라인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홈플러스는 '미트클럽 The M' 론칭을 기념해 다양한 단독 할인 쿠폰 혜택을 제공한다. 오는 6월 12일까지 4만원 이상 구매 시마다 e-스탬프를 제공해 4000원부터 최대 8000원까지 할

인 혜택이 담겨있는 사은 쿠폰을 증정한다.

또 다음달 9일부터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농협 안심한우 구이류(등심, 안심, 채끝, 부채살) 40% 단독 할인 쿠폰(홈플러스 스페셜 점포 제외)을 제공한다. 고기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채소류 14종 10% 할인쿠폰도 함께 제공한다. /신원선 기자

롯데백, 6월 '쥬라기 월드 특별전' 개최

김포공항점에서 아시아 최초 전시

롯데백화점은 6월 김포공항점에 미국, 호주 프랑스, 스페인에 이어 세계 5번째이자 아시아 최초로 '쥬라기 월드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쥬라기 월드 특별전'은 유니버설사 보유 콘텐츠인 '쥬라기 월드(2015년 개봉 영화)'에 나온 공룡들을 만날 수 있는 전시로, 롯데백화점이 종합 콘텐츠 기업 브랜드 '아키텍츠', 글로벌 전시



인공이 데리얼한 공룡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신원선 기자

전문 회사 '시티네온'과 함께 기획했다. 영화 주인공이 겪는 에피소드와 동일한 설정을 적용해 관람객이 영화 속 주인공이 돼 리얼한 공룡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신원선 기자

이마트 트레이더스, 첫 공동 마케팅 펼쳐

오늘부터 서울 동부권 3개점서 진행

이마트의 창고형 할인점 트레이더스가 월계점을 비롯해 하남점과 위례점까지 서울 동부권 3개점을 대상으로 첫 공동 마케팅을 펼친다.

오는 22일부터 내달 19일까지 4주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를 통해 트레이더스 월계/하남/위례 3개 매장에서 매주 33개 행사품목을 선정해 총 132개

품목을 할인 판매한다.

먼저, 4월 22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1차 행사에서는 삼성카드 이용 고객 대상으로 국내산 삼겹살과 계란 등 신선 먹거리와 생필품 등을 최대 27% 할인한다.

29일부터 시작되는 2차 행사에서는 기존 트레이더스 에어프라이어를 업그레이드 해 7.2L 대용량 버전으로 출시한 '에어프라이어 X(7.2L)'와 프랑



트레이더스 월계.

/이마트

스 프리미엄 스킨케어 브랜드인 '달광 하이드라스킨 크림 50ml' 등 보다 강력한 행사상품 등을 대거 선보일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